

(가)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에 의해 양산되는 대중 예술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 예술은 창작의 구성에서 표현까지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상품에 불과하다. 그는 대중 예술의 규격성으로 인해 개인의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되고, 개인의 개성은 다른 개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고 보았다. 특히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 예술은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 전락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가) - 1문단

기본적으로 대중 예술에 대한 비판이 가해지며 시작하고 있다. 비판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생각하면서 지문을 읽어내야 할 것이다.

- 대중 예술은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고, 현대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 예술의 본질이 무엇인지, 현대사회의 모순과 부조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가 생겼어야 한다.
- 아도르노는 대중예술이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상품이라고 표현했다. 대중예술이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으므로, 예술의 본질은 표준화와 대비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개성 정도가 적절한 표현일 것 같다.
- 규격성은 표준화된 생산과 동치가 될 것이고, 이는 개인의 감상 능력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 개성이 상실되는 것이다.
- 자본주의 사회가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가치로 환원한다는 것은 대중 예술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해버린 원인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전락이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 즉 예술의 본질(=개성)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는 것이다. 매우 글이 유기적으로 짜여 있으므로 서로 유의관계에 있는 말들에 주의하면서 읽어내는 것이 좋다.

아도르노는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하나의 가치 체계로 통일시키려는 속성을 동일성으로, 하나의 가치 체계로의 환원을 거부하는 속성을 비동일성으로 규정하고, 예술은 이러한 환원을 거부하는 비동일성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대중이 원하는 아름다운 상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그 자체로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예술은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들에게 체험하게 해야 한다. 예술은 동일화되지 않으려는, 일정한 형식이 없는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하는 매개여야 한다는 것이다.

(가) - 2문단

- 다른 가치 체계가 하나의 가치 체계로 통일되는 것이 앞서 1문단에서 언급한 개성의 상실, 즉 표준화가 될 것이다. 이러한 속성, 즉 통일성을 비판하면서 화자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통일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 즉 하나의 가치체계로서의 환원을 거부하는 속성인 비동일성이 될 것이다.
- 예술은 대중이 원하는(=표준화된) 아름다운 상품이 되기를 거부해야 한다. 그것이 표준화와 동치이기 때문이다. 예술이 본질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추하고 불쾌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인(=표준화된) 미의 기준에 맞지 않는 예술이 되어야 자신만의 개성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 예술이 해야 하는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예술가가 바라본 세계의 본질을 비정형화된 모습으로(=비형식적으로) 나타내어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도르노는 쇤베르크의 음악과 같은 전위 예술이 그 자체로 동일화에 저항하면서도,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것에는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폭력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불협화음으로 가득 찬 쇤베르크의 음악이 감상자들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했던 것처럼 예술은 그것에 드러난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동일화의 폭력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3문단

- 전위 예술이 아도르노에 의해 높게 평가받는다는 것은 앞서 아도르노가 예술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전위 예술은 동일화에 저항하고(1),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다. 이는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역설적으로 비동일성을 강요하게 되면서 비동일성의 동일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 쇤베르크의 음악은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모두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아도르노는 동일화의 폭력에 저항하고자 했던 것이다.

아도르노에게 있어 예술은 사회적 산물이며, 그래서 미학은 작품에 침전된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읽기 위해 존재한다. 그는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하는 전위 예술을 예술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으로 제시했다.

(가)-4문단

- 예술은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담고 있다. 이것이 앞서 언급했던 현대 사회의 부조리와 맥락을 같이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아도르노는 비동일성을 속성으로 하며, 비동일성의 동일화가 일어나지 않고, 또한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사람들에게 체험시키는 전위 예술을 다른 예술들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나)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예술은 사회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에서 떨어져 사회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의 미학은 기존의 예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한다. 가령 사과를 표현한 세잔의 작품을 아도르노의 미학으로 읽어 낸다면, 이 그림은 사회의 본질과 ㉞ 유리된 '아름다운 가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

(나)-1문단

- (가)가 아도르노의 주장을 설명한 것이었다면, (나)는 아도르노의 미학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다. 2211인문 헤겔 지문이 떠오르지 않는가? (가)가 헤겔의 미학, (나)가 미학의 논증에 대한 비판이었다.
- 예술과 사회의 관계는 예술이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드러내야 한다는 인식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서 아도르노는 예술의 자율성, 즉 비동일성을 추구했다. 이는 기존 예술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세잔의 작품을 아도르노는 사회적인 본질을 바라보지 않고 현대 사회의 부조리와는 관련이 없는, 즉 현실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가상을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한다.
- 1문단은 아도르노의 미학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세잔의 작품은 예술가의 주관적 인상을 붉은색과 회색 등의 채와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한 미메시스일 수 있다. 미메시스란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재현하는 것, 즉 감각될 수 없는 것을 감각 가능한 것으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세잔의 작품은 눈에 보이는 특성의 사과가 아닌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참모습, 곧 자연의 생명력과 그에 얽힌 농부의 삶 그리고 이를 ㉟ 응시하는 예술가의 사유를 재현한 것이 된다.

(나)-2문단

- 미메시스의 정의가 등장하고 있다. 항상 정의는 주의 깊게 읽어야 할 것이다.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재현하는 것, 즉 앞서 (가)의 2문단에서 언급했던 예술가가 직시하는 세계의 본질을 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예술가의 사유와 같은 형태로만 존재했던 감각될 수 없는 것들을 감각될 수 있는 것, 즉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 세잔의 작품은 따라서 그가 가지고 있던 주관적 인상(=관념)을 붉은색과 회색 등의 채와 기하학적 형태(=감각 가능한 것)로 바꾸는 미메시스인 것이다. 여기서의 주관적 인상이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자연의 생명력, 농부의 삶, 그에 대한 예술가의 사유가 되는 것이다.

아도르노는 예술이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미적 체험을 현대 사회의 부조리에 국한시킴으로써, 진정한 예술을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한다. 결국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

(나)-3문단

- (가)의 2문단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을 끌고 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아도르노는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술이라고 보았지만, 그것을 현대 사회의 부조리에만 국한시켰다. 세계의 본질은 앞서 세잔이 바라봤던 세계 등 여러 가지 형태일 수 있지만, 그것을 좁혀버린 것이다.
- 그는 예술을 감각적 대상, 즉 앞서 언급되었던 세잔의 색 및 기하학적 형태에 대한 비정형성을 체험하는 것으로 한정시켰다. 따라서 예술가가 바라보는 세계의 본질(=주관)에 대한 재현은 나타낼 수 없는 것이다. 대상을 현대 사회의 부조리로만 국한시켰기 때문이다.

한편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의 영역을 극도로 축소시키고 있다. 즉 그 자신은 동일화의 폭력을 비판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전위 예술만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주장하며 ㉡전위 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이는 현실 속 다양한 예술의 가치가 발견될 기회를 ㉢ 박탈한다. 실수로 찍혀 작가의 어떠한 주관도 결여된 사진에서조차 새로운 예술 정신을 ㉣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베냐민의 지적처럼, 전위 예술이 아닌 예술에서도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대중음악이 사회적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도 있듯이, 자본의 논리에 편승한 대중 예술이라 하더라도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나)-4문단

- 앞서 아도르노가 예술을 한정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연장선이다. 그는 동일화의 폭력에 저항하며 비판하지만, 역설적으로 전위 예술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관점에 따르도록 만드는 동일화(=표준화)를 시도한다.
- 예술의 영역을 현대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표현으로 한정시켜버린 아도르노의 미학은 다양한 예술의 가치를 부정한다. 이는 앞서 언급되었던 예술의 본질(=개성)에도 반하는 내용이다. 베냐민의 지적에서도 드러나듯이, 전위 예술이 아닌 것도 미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대중 예술이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 또한 아니다.

4. 다음은 (가)와 (나)를 읽고 수행한 독서 활동지의 일부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가) | (나) |
|--------------|---|---|
| 글의 화제 | 아도르노의 예술관 - ㉠ | |
| 서술 방식의 공통점 |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그것에 담긴 의미를 설명함. - ㉡ | |
| 서술 방식의 차이점 | (가)는 (나)와 달리 화제와 관련된 개념을 정의하고 개념의 변화 과정을 제시함. - ㉢ | (나)는 (가)와 달리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 다른 이의 견해를 인용함. - ㉣ |
| 서술된 내용 간의 관계 | (가)에서 소개한 이론에 대해 (나)에서 의의를 밝히고 한계를 지적함.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두 글 모두 아도르노가 예술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해, (가)는 설명하고 (나)는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 (가)는 쇤베르크의 음악, (나)는 세잔의 작품을 각각 예시로 들며 그것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 (가)에서 화제와 관련된 개념에 대한 변화 과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3번을 답으로 고르면 된다.
 -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나)는 베냐민의 지적을 인용하고 있다.
 - (가)에서 소개된 아도르노의 미학에 대해 (나)의 1문단에서 의의, 그 이후에서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5.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 예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화 산업을 통해 상품화된 개인의 정체성과 대립적 관계를 형성한다.
 - 아도르노는 대중 예술이 표준화(=상품화, 동일화)되며 이러한 대중 예술이 개인의 정체성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정체성과 대립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일정한 규격에 맞춰 생산될 뿐 아니라 대중의 감상 능력을 표준화한다.
 - 일정한 규격(=규격화)에 맞춰 생산되고, 이러한 대중 예술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쳐 개인의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 된다는 것이 지문에 그대로 나와있다.
- ③ 자본주의의 교환 가치 체계에 종속된 것으로서 예술로 포장된 상품에 불과하다.
 - (가)의 1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드러난다. 모든 것을 상품으로 환원시키려는 자본주의의 교환 가치 체계 하에 놓인 대중 예술은 이미 상품화가 진행되었기에, 예술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상품이 되어버린 것이다.
- ④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을 은폐한다.
 -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은 곧 현대 사회(=자본주의 사회)의 부조리와 연결된다. 아도르노는 이를 드러내고자 하는 예술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중 예술은 이를 드러내고자 하기 보다는 오히려 은폐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1문단 첫 번째 문장에서도 바로 드러나고 있다.
- ⑤ 문화 산업의 이윤 극대화 과정에서 개인들이 지닌 개성의 차이를 상실시킨다.
 - 개성의 차이가 상실된다는 것은 예술의 본질의 상실, 즉 동일화가 진행되는 것과 동치이다. 따라서 문화 산업의 이윤 극대화 과정에서 개성의 차이가 상실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6. ㉠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의 이유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드로노가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를 부정할 때 했던 생각을 알아야 한다. 이는 아드로노가 (가)에서 했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내용이여야 한다. 이를 만족하는 선지는 ㉡밖에 없다.
- ① 비정형적 형태뿐 아니라 정형적 형태 역시 재현되기 때문이다.
- 정형적 형태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가했던 아드로노가 할 수 있는 생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 ② 재현의 주체가 예술가로부터 예술 작품의 감상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 재현의 주체가 예술가로부터 감상자로 전환된다는 내용은 아드로노의 주장에서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아드로노는 예술이 감상자에게 예술가가 바라보는 세계를 체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객체를 주체로 바라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미적 체험의 대상이 사회의 부조리에서 세계의 본질로 변화되기 때문이다.
- 아드로노가 받는 비판의 핵심이 미적 체험의 대상을 사회의 부조리로 한정시켰다는 내용이다. 아드로노가 할 수 있는 주장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 ④ 미적 체험의 과정에서 비정형적인 형태가 예술가의 주관으로 왜곡되기 때문이다.
- 아드로노가 받는 비판에서 역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아드로노는 형태 자체에 대한 비정형성을 추구하지 예술가의 주관을 거기에 개입시키지는 않는다. 적절하지 않다.
- ⑤ 예술가의 주관이 가려지고 작품에 나타난 형태에 대한 체험만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 예술가의 주관을 경시하고 형태 자체의 비정형성을 추구하고 그것에 대한 체험을 강조한다는 것이 아드로노의 주장이다. 맞는 선지가 된다.

7. (가)의 ‘아도로노’의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일화는 애초에 예술과 무관하므로 예술의 동일화는 실현 불가능하다.
- 동일화는 예술과 무관하지 않다. 대중 예술이 동일화가 되었다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도로노의 관점이다. 예술의 동일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다.
- ② 전위 예술의 속성은 부조리 그 자체를 폭로하는 것이므로 비동일성은 결국 동일성으로 귀결된다.
- 아도로노가 이야기하는 비동일성이 오히려 동일성으로 귀결된다는 것은 아도로노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이를 아도로노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동일성으로 환원된 대중 예술에서도 비동일성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예술의 동일화는 무의미하다.
- 표준화되어버린 대중 예술을 강하게 비판하던 아도로노의 관점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비동일성을 발견할 수 있다면 아도로노가 대중 예술을 비판할 이유가 없다.
- ④ 전위 예술은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구분을 거부하므로 전위 예술로의 동일화는 새로운 차원의 비동일성으로 전환된다.
- 전위 예술은 동일화의 폭력에 저항하며 비동일성을 추구한다. 둘의 구분을 거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전위 예술로의 동일화는 아도로노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 ⑤ 동일화를 거부하는 속성이 전위 예술의 본질이므로 전위 예술을 추구하는 것은 동일화가 아니라 비동일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 동일화의 폭력에 저항하는 것, 동일화를 거부하고 개성을 유지하는 속성이 비동일성이고, 이는 전위 예술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도로노의 주장과 일치한다.

8. 다음은 학생이 미술관에 다녀와서 작성한 감상문이다. 이에 대해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 (A)과 (나)의 글쓴이의 관점(B)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주말 동안 미술관에서 작품을 관람했다. 기억에 남는 세 작품이 있었다. 첫 번째 작품의 제목은 「자화상」이었지만 얼굴의 형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기괴한 모습이었고, 제각각의 형태와 색채들이 이곳저곳 흩어져 있어 불편한 감정만 느껴졌다. 두 번째 작품은 사회에 비판적인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묘사한 그림으로, 대량 복제되어 유통되는 작품이었다. 그리고 사용된 색채와 구도가 TV에서 본 상업 광고의 한 장면같이 익숙하게 느껴져서 좋았다. 세 번째 작품은 시골 마을의 서정적인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으로 색감과 조형미가 뛰어나 오랫동안 기억에 잔상으로 남았다.

- 첫 번째 작품에 대해 학생이 보인 반응은 불편함과 추함이다. 대중의 기준에 맞춰가는 동일화를 탈피하여 비동일성을 지향하는 아도르노는 이러한 불편함과 추함을 긍정하고 있다.
 - 두 번째 작품에 대해 학생이 보인 반응은 대중 예술에 대한 반응이다. 상품으로 전락한 대중 예술의 영향을 받아 함께 동일화가 되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아도르노의 생각일 것이고, (나)의 화자의 입장에서는 대중 예술이 사회 비판적인 내용을 담을 가능성을 긍정하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고발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 세 번째 작품은 세잔의 작품과 유사하다. 색감과 조형미가 강조되며 형태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을 보여주고 있다.
- ① A : 첫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기괴함과 불편함을 느낀 것은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예술적 체험의 충격 때문일 수 있습니다.
-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예술은 곧 비동일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대중의 기준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므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 ② A : 두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느낀 익숙함은 현대 사회의 모순에 대한 무감각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 산업의 논리에 동일화되어 감각이 무뎠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 학생 또한 대중 예술의 영향을 받아 무감각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도르노의 주장과 동일하다.
- ③ A : 세 번째 작품에 표현된 서정성과 조형미는 부조리에 대한 저항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저항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예술이어야 진정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사회에 대한 저항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동일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는 아도르노의 입장과 상충된다.

④ B : 첫 번째 작품의 흩어져 있는 형태와 색채가 예술가의 표현 의도를 담고 있지 않더라도 그 작품에서 예술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 (나)에서는 주관이 결여되어도(베냐민의 의견) 예술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⑤ B : 두 번째 작품은 대량 생산을 통해 제작된 것이지만 그 연예인의 사회 비판적 이미지를 이용해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 앞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게 대중 예술임에도 사회 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을 수 있음을 (나)의 화자는 긍정한다.